

화재 및 환경 안전을

최우선으로

이번 탐방은 천년古都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인 발레오 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를 방문하였다. 승용차와 상용차로 구분된 공장은 대지면적 101,606㎡, 건물 연면적 66,038㎡ 규모에 자동차용 발전기, 시동 모터, 디스트리뷰터 등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1999년 프랑스의 세계적인 자동차 전장시스템회사인 발레오에 합병된 이후 현대, 기아, GM대우, 르노 삼성, 쌍용 등에 각종 자동차 전장시스템을 납품하고 있다.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 경주공장

예방을 최우선으로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의 화재안전활동은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예방활동은 크게 공장 내 흡연정책, 용접 등 위험작업의 절차 확립, 정기적 안전점검과 위험물질의 안전 관리를 위해 개선된 카트 및 안전 캐비닛의 사용으로 대별된다.

흡연정책은 직원들의 건강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해 금연을 우선으로 하되 곳곳에 흡연 구역도를 부착하고,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는 편안하게 흡연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구역을 벗어난 흡연에 대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엄격히 시정조치하고 있다. 화학물질 및 유류 운반은 누유반이가 설치된 자체 표준형 카트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기능이 고장 나더라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Fail Safe의 개념을 적용한데 따른 것이다. 드럼 급유대와 유류, 폐수액, 배터리 폐산 등 모든 위험물질의 보관대는 누유반이가 설치된 제품을 사용하여 유사시에 대비하는 등 그 어떤 것보다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환경안전지원팀의
김용현 차장(좌)과
정재욱 과장(우)

금지과 의지가 느껴져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고, 인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소방시설은, 방호공간 특성에 따라, 옥내·외 소화전, 자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설비, 가스계소화설비 등이 있다. 공장 전역에 설치된 양방향(루프타입) 소화수 배관은 한 쪽 라인이 막히더라도 소화용수 공급이 가능하다.

소화용수는 90분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으로, 1, 2공장을 합해 총 1,250톤이 저장되어 있다. 전 공장의 95%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5% 공간에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스프링클러 밸브의 2차측 개폐밸브는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았다. 공장 전역의 R형 자동화재탐지설비는 FM(Factory Mutual)기준에 따라 Style 6(루프타입)로 설치하였다고 강조하는 환경안전지원팀 김용현 차장과 정재욱 과장의 얼굴에서 금지과 의지가 느껴진다.

화재 시 비상대응계획

화재 시 비상대응계획은 대응조직 및 업무분장, 화재규모별 시나리오, 대응절차, 피난 대책으로 구분된다. 비상대응조직은 유사시 반장/팀장/공장장 등 화재 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지휘체계가 확대되도록 운영하고 있다. 평소 훈련도 화재규모별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자체 진화가 가능한 소규모 화재는 반 또는 팀 단위에서 지휘토록 하고 있다.

전사적인 자위소방대 조직과 별도로 운영하는 현장 중심의 반/팀별 대응조직은 초기 및 소규모 화재 진압에 매우 효과적이어서, 앞으로는 훈련 횟수를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검증된 교훈의 공유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QRQC란 별도의 조직운영을 통해 대응 시나리오를 검증하여 개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시나리오도 전사 조직인 자위소방대가 출동하는 대규모화재와 반/팀별 단위에서 결정짓는 설비화재(단일화재)로 구분하고 있다.

화재안전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합병 이듬해인 2000년 정부로부터 “Best foreign investment”상을 수상한 이후 2002년 ISO 14001, 2004년 ISO/TS 16949, 2006년 OHSAS 18001/KOSHA 18001에 이어 2007년 KFPA화재안전 인정 획득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화재 및 환경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주)가 확고한 안전철학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안전문화를 선도하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이번 탐방을 마쳤다. ☺

